

88올림픽 관련시설 안전점검에 적극협력



이사장 이 상 규

저희 협회는 지난 87회계년도(87. 4. 1~88. 3월말) 중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비롯 시험연구업무의 기반확립, 위험관리업무의 개발, 보험업무의 서비스 향상과 부보율 제고 등을 업무추진의 주요 기본방침으로 설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비록 제한된 인력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수건물과 기간산업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88서울 올림픽에 따른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신규특수건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2천1백 여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관서 등에서 요구하는 확인점검 5백45건, 원수사 등에서 요청하는 일괄출재물건에 대한 위험조사 2백23건, 특별점검 2백2건, 보험계약자료조사 4백54건을 실시하여 산업전반의 위험관리에 폭넓게 대처해 왔으며 보험업무에서도 3백93억여원의 보험료 수입실적을 올려 목표대비 5.7%를 초과달성하는 등 업무전반에 걸쳐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한편 협회 부설 방재시험소에서도 시험소의 기능활성화와 기반확충 등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87년 10월 내무부로부터 시험공인기관으로 확인 받은 것을 비롯, 지난 3월에는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선박용 방화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주)부성실업의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와 남양산업의 Co₂ 소화기, (주)협동의 ABC급 축압식 분말 소화기 등에 대하여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를 발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노력 외에도 지난 2월에는 88 서울올림픽 선수촌건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을 비롯 관련 시설의 안전을 위한 점검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88서울올림픽 행사에 대비한 저희 협회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그동안 협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특수건물 소유주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이 상 규